

許浚

朝鮮시대의 대표적 醫學者
東醫寶鑑을 펴낸



朴星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東醫寶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醫學書
중국과 일본에서 수백년동안 읽혀졌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학자 한 사람을 고른다면 許浚(1546~1615)을 들 수가 있다. 또 그가 대표로 지은 《東醫寶鑑》은 한국의 대표적 의서일 뿐 아니라 수 백년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진 책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중국에 갔던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곳 책방에 진열되어 있는 《東醫寶鑑》을 보고 이를 자랑으로 여겼다. 또 일본 京都에서는 1724년 “백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경전”으로 이것이 출판된 이후 여러차례 출간되어 일본 의사들의 중요한 참고서가 되어왔다.

이 책을 지은 許浚은 《홍길동전》을 지어 유명한 許均과 같은 집안으로 본관이 陽川이다. 그의 아버지는 許論이었는데 許浚은 서얼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살던 宣祖 때에는 이미 서얼 출신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해서 그들에게는 소위 中人이 할 수 있는 직업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의학·천문학·수학·통역관 등이 그것이었다.

28세에 醫科를 거쳐 과거에 급제
임진왜란때 임금을 수행 扈從功臣 되고

28세에 雜科의 한 부분인 醫科를 거쳐 과거에 급제한 그는 곧 內醫院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590년 그는 왕자의 병을 고쳐 승진을 한 일도 있고, 임진란으로 임금이 義州까지 피난했을 때에는 그 일행을 수행하여 뒤에 扈從功臣의 자리에 들게도 되었다.

이런 저런 연고로 왕실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때문에 그는 《東醫寶鑑》 편찬을 책임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王命으로 편찬케 된 것이었으며, 일에는 鄭碯·楊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 등이 가담했다. 1956년(宣祖 29) 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醫書는 모두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번잡하기만 하여 참고 하기가 불편하다. 무릇 질병이란 조섭을 잘못하여 일어나므로 일상 조심함이 제일이며 약물이란 그다음가는 것이다. 예로부터의 여러 처방 가운데 번잡하고 실용성이 적은 것은 버리고 진짜 알맹이 될만한 것만 보아서 醫學의 經典을 정리해 보라. 이로써 시골사람도 요절과 비명의 횡액을 면하게 하고 국산약재를 다시 검토·분류하여 무지한 백성일지라도 쉽게 의학지식을 얻게 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야심적으로 시작된 “醫學의 經典”을 정리해 내려는 작업은 곧 시작된 일본의 침략으로 중단되어 버렸다. 그리 많은 작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丁酉再亂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맡길 때 임금은 궁궐에 보관돼 있던 의학관계서적 500권을 내주었는데 이들을 제대로 펼쳐 보기도 전에 다시 전쟁의 혼란에 말려든 것이었다. 결국 두 번의 왜란이 끝난뒤 許浚의 단독 노력으로 이 작업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光海君때(1610) 시작한지 14년만에 완성
25권 25책, 內景·外形·雜病·湯液·鍼灸 등 5篇

1610년(光海君 2) 《東醫寶鑑》은 완성되었다. 시작한지 14년만의 일이었다. 25권 25책으로 이것이 처음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1613(光海君 5)년의 일이었다. 지금은 아주 두꺼운 책 한권으로 번역돼 나와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피가 큰 책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제법 분량이 크면서도 이 책은 당시까지의 어느 醫書보다 요령있게 잘 정리돼 있었고, 바로 그점 때문에 이것은 동양 세 나라에서 모두 널리 읽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目錄 2권에 이어 다음과 같이 5篇으로 되어 있다.

1. 內景篇(4 권)——신체의 모양에서 시작하여 생리학 일반이 설명되어 있다. 꿈과 言語에 대한 설명도 있고, 5장 6부를 소개한다. 오늘날의 內科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있는 셈이다.

2. 外形篇(4 권)——요즘의 外科와 이비인후과 등은 여기 소개되어 있다. 머리·얼굴·눈·귀·코·입·치아등에서 시작하여 배·허리·등·근육·팔다리·머리의 질환도 취급되어 있다. 그밖에 피부병·비뇨기 질환·성병도 포함되어 있다.

3. 雜病篇(11권)——진단 방법·진맥등이 소개되고 이어 구토·땀·설사·감기·열·냉·곽란·기침·황달등이 다루어져 있다. 당시에는 잘 모르던 몇가지 전염성 질환도 여기서 다루지고 있으며, 각종 종기의 치료법도 여기 속한다. 끝으로 부인과와 소아과 질환이 각각 한 권씩을 차지하고 있다.

4. 湯液篇(3 권)——오늘의 藥理學에 속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당시에 사용되던 약품이 당시의 분류에 따라 설명되어 있다. 그 차례는 水·土·穀·人·禽·獸·魚·虫·果·菜·草·木·玉·石·金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5. 鍼灸篇(1 권)——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經穴의 부위나 치료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자료를 요령있고 편리하게 정리, 국산약품 소개
약품이름 한글로 표기하여 민족의학을 강조

도대체 수많은 의서 가운데 《東醫寶鑑》이 특히 유명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책은 의사들이 참고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자료를 아주 요령있고 편리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 이보다 방대한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은 많지만 자료만 잔뜩 들어있다 해서 편리한 것은 아니다. 임상 의사들에게는 질병이 난 위치에 따라서 또는 환자의 증세에 맞춰 그때 그때 급히 자료를 찾고 알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요구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許浚은 또한 湯液篇에 나오는 약품 이름등을 일일이 한글로 俗名을 적어 넣었으며, 많은 국

산 약품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옛부터 내려오는 처방에는 일일이 출전을 밝혀 더 찾아 보고 싶은 사람은 연구를 확대해 갈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그가 인용해 놓은 중국의 옛 의학서는 80종을 넘는다.

한글 표기를 하고 있다거나 국산약품을 소개하는 등 이 책은 제목을 ‘東醫’로 붙였을 만큼 민족의학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 東醫란 물론 漢醫가 아닌 우리나라의 의학을 뜻한 것이었다.

**‘鄉藥’ 운동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켜
東醫學의 개념을 확립한 것이기도**

그전까지도 東醫學의 전통은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의 우리나라 의학은 東醫學이라 부르기 보다는 ‘鄉藥’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고려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鄉藥’ 운동은 ‘漢藥’ 또는 ‘唐藥’ 등 중국의 약품에 대한 한국의 약품이란 뜻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 중국의학을 그대로 수입하기 보다는 한국인 체질에 맞는 약품을 찾아내고 또 한국에서 산출되는 약초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조선왕조 초기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東醫寶鑑》에서 나타나는 ‘東醫學’의 강조는 바로 이와같은 ‘鄉藥’ 운동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이것은 그후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등으로 계승되어 東醫學의 개념을 확립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傳統醫學의 古典을 정리하고
많은 醫學書를 교정하여 증보판을 냄**

실제로 許浚은 世宗대에 완성된 우리 전통의학의 고전 《鄉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를 계승하여 더 간편하게 정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醫方類聚》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어서 세종 때에는 이것을 인쇄해내지도 못하고 成宗때에 이것이 출판되었을 때에도 겨우 30질만이 간행돼 관계기관에만 배포되고

말았다. 도저히 의사 한 사람이 구해보기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책이었다.

許浚이 이뤄놓은 일은 이런 전통을 알맞은 크기에 요령있게 요약한 것 이외에도 여럿 더 들 수가 있다. 그가 35세 때인 1581(宣祖14)년 그는 《纂圖方論脈訣集成》이란 4권의 책을 교정해 냈는데,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에 널리 쓰여진 醫科의 과거 준비서로서 진단의 지침서였다. 책의 잘못된 부분문맥이 통하지 않는 곳등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는 또 世祖때의 명의 任元濬이 쓴 《瘡疹集》을 고쳐 증보판을 내기도 했다. 열이 나고 두드러기등이 나는 질병에 대한 책을 말하는 것으로 任元濬은 그 뒤 연산군 때에 악명을 떨친 任士洪의 아버지였다.

**전염병의 예방·치료에 관한 책도 편찬,
장티푸스·성홍열·발진티푸스퇴치에 공헌**

1591년에는 嚴重禮의 《胎產要錄》도 개정했으며, 또 《救急方》 《痘瘡集》 《胎產要錄》등은 언해본, 즉 한글번역판을 출판하여 읽기 쉽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임진란 이후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여 계속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許浚은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등을 써내어 전염병 퇴치에 힘썼다. 당시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장티푸스·성홍열·발진티푸스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許浚의 일생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었다. 1608년 봄 宣祖가 죽자 의례적으로 잠깐 귀양살이를 한 것을 빼고는 이렇다할 고통도 당하지 않은채 의사로서는 온갖 영예를 누렸다. 功臣의 칭호를 얻고 輔國崇祿大夫로서 陽平君에 임명되기도 했다. 1615(光海君 7)년 8월13일 70세의 나이로 죽은 陽平君 許浚은 지금 부인 金씨와 나란히 서울 북쪽 長湍郡 서북쪽 10리 지점에 누워 臨津江을 굽어 보고 있다. 그에게는 외아들 許謙이 있었다는데 그의 후손들이 지금 어찌 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